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76) ⑤

(가), (나) 모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자연물에 연관지어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새 새끼, 어린 양, 늙은 산'을 연상하는 것에서, (나)에서는 계절의 순환에 순응하고 수용하려는 모습에서 시적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177) ④

'춧불'은 어둠을 몰아 내기 위해 예비된 것, 즉 희망의 이미지로 쓰였다. '검은 치마자락'은 밀려올 밤의 '어둠'의 의미이므로 두 시어는 서로 대조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8) ②

시인은 깊어 가는 가을밤에 하늘을 우러러 별을 헤아린다. '별'을 보면서 시인은 과거의 그리운 것들을 회상하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시인은 추억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있는 현재 상황이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별'은 시인의 추억을 되살리고 그리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소재로, 시인이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내는 매개체가 된다.

179) ⑤

<보기>의 설명은 시인의 상황이나 심정을 자연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하는 '감정 이입'이다. 9연에서 시적 화자는 부끄러움에 우는 자신의 심정을 밤새워 우는 자신의 심정을 밤새워 우는 별레에 연결시켜 자신도 고뇌의 울음을 밤새워 우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정 이입'에 해당한다.

180) ⑤

'저근덕 밤이 드러'로 보아 배경이 낮에서 밤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고, 꿈을 꾸면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무대가 옮겨졌다가 다시 잠을 깨면서 현실로 돌아온다. 또한 작자는 여정에 따라 '독서루'에서 '망향정'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다. 그러나 '오월 당턴'으로 보아 여름인 것은 알 수 있으나 가을로 옮겨갔음은 확인할 수 없다.

181) ③

관찰사로서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즉,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수려한 자연 경관에 대한 회포가 드러난다.

182) ①

㉠은 수평선을 묘사한 부분으로, 작가의 시선이 수평선에 머물러 있지만 사고 과정은 '바다→하늘→미지의 세계'로 진행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① 또한 '언덕 너머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과 발상이 유사하다.

183) ②

'계명성 듯도록 곳초 앉아 바라보니'로 볼 때 ②의 '발길을 돌려 내려 왔다'는 것은 이 글의 작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184) ②

달맞이 중에 잠이 들면서 꿈에 '흔 사람'과 술을 마시고 깨어난 뒤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적은 것이다.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다'는 ②가 적절하다. ①은 폭포수, ③은 산봉우리, ④는 누각을 묘사한 것이고, ⑤는

높은 곳에서의 조망을 나타낸 것이다.

185) 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소재는 ‘감자’와 ‘올타리’이다. ‘감자’가 ‘나’를 향한 점순이의 연정을 상징한다면, ⑤의 ‘올타리’는 마름집 딸인 점순이와 소작농의 아들인 ‘나’의 접근을 가로막는 사회 계층적 금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④의 ‘올타리’는 ‘일거리’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186) ④

‘쌔이질(씨양이질)’은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짓’을 뜻하며, ④와 유사하다. 그러나 ①은 ‘사이나 감정이 마음먹은 것과 틀려서 짝 돌아서다’, ②는 ‘미운 티를 내며 빈정대다’, ③은 ‘편을 들다’, ⑤는 ‘신이 나서 도도하게 굴다’의 의미이다.

187) ⑤

㉠에서 호의를 거절당한 것은 점순이의 연정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나’가 점순의 마음(‘나’를 좋아하는)을 안다고 가정한다면(사실, 작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과 같은 행동에서 점순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①, ②, ③, ④ 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⑤는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다.

188) ③

‘감자’는 ‘나’에게는 점순이의 무시나 동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점순에게는 소중한 연정의 표현물이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나를 좀 보아달라며 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③이 정답이다.

189) ⑤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인칭 소설은 소설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외면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에 객관성이 부여된다.

190) ④

이 작품은 ‘나 - 소극적, 점순 - 적극적’이라는 인물의 대조적 성격을 통해 주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치 못하다.

191) ③

(가)에서는 가을 물가의 황혼녘이라는 배경이 한림의 비탄을 깊게 하며, 그 비탄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벽 위에 남겨진 사씨의 글을 발견하면서 한림은 더욱더 회한에 젖어들고 있다. (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때문에 도적들에게 쫓기는 한림의 위기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나)에서 한림의 말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내면적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192) ④

유한림이 회사정에 간 이유(①)와 물에 빠져 죽으려는 동기(②)는 지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으며, ⑤의 질문 내용은 촌사람들의 대답과 문맥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③의 도적의 행동은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구원자(모희와 부인)의 배가 위기 상황에서 ‘홀연히’ 나타난 것은 사건의 우연성과 관계 깊은 것으로서, 인과적 필연성이 없는 사건 전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3) ②

사씨의 글은 누명을 쓰고 방랑하다가 비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려 할 때 남긴 것이다. ②는 초나라의 굴원이 참소에 의해 쫓겨났다가 자결한 심경을 읊은 시조인데, 비통함과 한의 정서가 사씨의 글과 유사하다. ①은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이며, ③은 쉽게 변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④는 임(단종)을 유배지에 호송하고 돌아오는 슬픔을 무심히 흐르는 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한 시조이다.

194) ①

<보기>의 제문은 한림의 심경, 추억, 자기 행동에 대한 회한, 명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앞에는 혼인 직후 화평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 뒤에는 요망한 참언에 속아서 부인을 쫓아낸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적당한 내용은 ‘부인이 평상시에 보이던 품행과 덕성’ 등이다.

195) ①

(가)에서는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을 찾아 헤매는 비통한 심정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고, (나)에서는 쫓기는 상황의 급박함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은 당시의 사대주의 사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뿐,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며(②), 이 글에는 당대의 풍속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③). 또한 집단의 고뇌와 갈등보다는 개인적인 고뇌를 보여주고 있으며(④), (나)의 내용을 활극(난투 장면을 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난투 장면을 남발하는 대중소설은 지양해야 할 것이지 경쟁력을 건줄 만한 것은 아니다(⑤).

196) ⑤

첫 번째 문단에서 ‘지도는 ~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①)고 했어. 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의 대부분은 관 중심으로 만들어져 통치와 행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③)고 했지.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광복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지도는 대중에게 보급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②를 알 수 있고, 또, 네 번째 문단의 ‘근래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④를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주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가 아니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면서부터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⑤는 이 글과 다른 내용이야.

197) ①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도는 기존의 지도는 컴퓨터 지도든 모든 기호 체계를 사용한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지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도는 ‘공간 정보를 기호 체계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

198) ③

이 지도에서 조선은 유럽에 비해 실제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 있어. 이는 신흥 국가 조선을 세계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때는 국가와 왕이 동일시되는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이는 당시 조선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③은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199) ⑤

마지막 문단에서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했어. 즉, ‘창’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매개’인 거지. 그리고 이러한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갖가지 의미를 이끌어 낼 때 지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은 훌륭한 한 권의 ‘책’이 된다고 했으니까 ‘책’은 ‘인식이 확대’된 것을 말하는 거야.

200) ①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은 ‘부류에 속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어.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이지. ②는 ‘동일한’, ③은 ‘추측’, ④는 ‘비슷한(비유)’, ⑤는 ‘자격(답다)’을 나타내는 의미로 씌었어.

201) ②

이 글은 ‘왜 욕망의 통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면 구체적으로 욕망의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적인 순서이다.

202) ⑤

이 글에 따르면, 욕망의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답지 중에서 이런 경우를 찾으면 ⑤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은 아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 도덕적인 선악을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㉓ 도덕적인 선악을 따지기도 어렵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203) ㉓

㉓은 ‘금은옥백’이나 ‘진초의 부(富)’, ‘조맹의 귀(貴)’ 같은 세속적인 욕망은 다 부질없는 근심거리일 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도리를 깨닫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므로 ㉓의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4) ㉒

‘귀착(歸着)’은 ‘의논이나 의견 따위가 여러 경로(經路)를 거쳐 어떤 결론에 다다름.’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㉓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귀납(歸納)-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귀환(歸還)-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반환(返還)-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환원(還元)-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

205) ㉒

시험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지행합일설의 입장에서는 ‘부정 행위는 나쁘다’는 앎, 부정행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판단, 부정 행위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등을 모두 ‘앎’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정 행위는 나쁘다(부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범적 지식’만을 ‘앎’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입장이 갈리게 된 이유는 ‘앎(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